금성강단

발 행 인 : 이성오
발 행 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1004,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8월 23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요 20:11-18
제목 : 성찰하는 신앙 · 회복되는 형상(4)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7)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인 율법 학자의 사회 전반의 사상에 대하여 입으로 전해 내려온 해설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에 대한 놀라운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탈무드에 <입과 귀와 눈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입이 하나이고 귀가 두 개로 만든 이유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하기 보다는 다른 이의 말을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의미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습니다. "사람의 눈은 흰 부분과 검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은 부분으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사상 가운데 검은 색은 악을 상징하고 흰색은 선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검은 눈동자로 세상을 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스승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두운 면에서 보는 편이 좋기 때문이다. 밝은 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중요한 교훈들은 어두운 시기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차창을 통하여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게 됩니다. 그러나 열차가 터널에 들어가게 되면 창을 통해서 보이는 것은 자기의 얼굴입니다. 깜깜한 고난의 때에는 자기의 모습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어두움의 시기를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게 만들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회복하게 만들면서 천국의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해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하루에도 수많은 확진 자가 발생하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번 주부터 또 중단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예배도 비대면 예배(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만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퍼져나가던 지난 3월부터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렸습니다. 국민들이 잘 대처하면서 교회는 부활절 이후로 방역의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예배와 영상예배를 병행하면서 한 4-5개월 잘 대처했습니다.

정말 코로나19와 영적인 투쟁을 한다는 마음

으로 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왔고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모습이 점점 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 다시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져서 마음이 심히 무겁습니다. 특히 교육부 예배가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점점 활력을 되찾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비대 면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을 심히 괴롭게 만듭니다. 다음세대를 잘 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 코로나19로 온 고난을 깊이 성찰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서 기도하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코로나 19와의 투쟁에서 승리하도록 자비의 손길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실 8월의 설교 계획대로라면 오늘은 하갈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를 중심으로 설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배가 비대 면으로 드려지는 현실로 인하여 속으로 울고 있을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을 상실한 채 빈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누구를 찾느냐?" 란 말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마치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처럼 가슴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성찰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랑을 체험한 자만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음을 성찰하라는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목격한 장면의 기록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시체를 무덤에 누운 지 사흘 후에 사랑하는 자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시신이 썩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몸을 떠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죽은 자의 영이 사흘 동안 무엇을 기다리는 듯이 무덤 주위에 떠돌아다니다가 그 후에는 영이 떠나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매우 일찍이 주님이 누인 무덤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장사된 지 사흘이 지난날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이곳에서 <일찍이>의 헬라어는 <프로이>인데 영어로 <early>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고 마가는 기록했습니다. (막16:1-2)

그 이른 시간에 주님의 시신이 누어있던 무덤에 온 마리아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에서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엔 무덤입구의 돌이 쉽게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덤 입구의 바닥에 홈을 파서 고정되게 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무덤은 인봉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장면을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과 함께 왔던 다른 여자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혼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계속 울었습니다. 대성통곡하는 모습입니다.

왜 마리아는 무덤 곁에서 그렇게 서글프게 울고 있습니까?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그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시신까지 도둑을 맞았다고 생각하니 더 슬펐습니다. 예수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시신을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신을 가져 갈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이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막달리네 출신의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누가와 마가는 마리아가 일곱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고쳐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것은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마리아를 예수는 회심을 시키시고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셨습니다.

새 삶을 살게 된 마리아는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눅8:1-3입니다. "1.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새 열두 제자가 함께 하였고 2.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 사랑이 강하여 주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자기들이 소유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재정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시신이 있는 무덤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일찍 온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 강하여 새벽이 오기를 그토록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없어졌으니 슬픔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이런 눈물은 사랑을 해보지 못한 자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왜 우리는 다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그런 것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이렇게 주일이 되면 다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예배를 상실하니 이처럼 가슴 깊이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예배를 상실했기에 그토록 힘들어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권세 있는 자들이 알겠습니까? 학 박사들이 압니까? 정치가들이 압니까? 부자들이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이 죽어서 그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니 이렇게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모든 분들이 다 이런 예배의 상실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비대 면으로 드린다고 다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은혜를 체험한 강도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랑을 받은 강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장마로 인하여 사고가 난 의암댐 선박 전복사고로 실종 된 두 명 가운데 한분의 시신이 16일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시신을 찾기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 가요? 그리고 시신을 찾은 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가족이 아닌 자들은 처음에는 같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쉽게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신이라도 찾은 가족들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장례라도 치룰 수가 있으니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시신에게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고 갔는데 시신을 잃고 우는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시신을 찾기를 원했을까요? 시신이나마 향품을 바르려 했는데 시신이 없어져 그 상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랑을 맛보는 자만이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 눈물을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흐르는 이런 문는 여러분의 마음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실한 아픔에만 가득 차 있으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 진리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성찰하셔야 합니다.

마리아는 계속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천사들과 말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마 무슨 인기척이 난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 상황을 "그 곳에 예수께서 서 계셨으나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왜 주님이 가까이 계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을 까요? 우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슬픔에 계속 잠겨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에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에 젖은 눈동자의 시야를 가리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슬픔에 너무 젖어 있으면 영적으로 시력이 약해집니다. 곁에 있는 진리를 못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힙니다. 그 장면이 사라의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집에서 내어 좇으라고 남편에게 조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말한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고 합니다.

하갈이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 방황합니다. 길이 없으니 이리저리 뜨거운 태양 밑에서 방황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가죽부대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들이 목이 타들어 가면서 나 죽는다고 발버둥 칩니다. "엄마! 나 목타들어 가요 물 좀 줘요 물 좀." 하갈이 아들을 위해

물이 없음을 인하여 아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방성대곡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여셨습니다. 샘물을 보게 했습니다. 그 물로 그 아이를 마시게 했습니다.

상실한 곳에서 오는 슬픔의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빈 무덤만 바라보면서 울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갈처럼 상실한 곳만 바라보면서 울지 말기를 바랍니다. 계속 울기만 하면 영의 눈도 닫힙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문제 해결의 길도 보지 못합니다. 샘물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픔의 눈물로 가득 차 있으면 안보입니다. 예배가 비대 면으로 드려지고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중단되었다는 그 아픔에만 그 고통에만 젖어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는 주님의 말에는 책망의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왜 계속 울고만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이미 다 닦아주셨고 앞으로도 닦아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인 성 과부가 독자를 잃고 장례를 치루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는 얼마나 하여없는 눈물을 흘렸을 까요? 딸도 없이 오직 하나 밖에 없는 이 아들은 자기의 삶의 지탱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것도 젊은이였습니다. 이제 직장만 들어가고 결혼을 하면 됩니다. 얼마나 이 어머니에게 소망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마지막 가는 길에 장례를 잘 치러 주는 것밖에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팔레스틴에서 장례식을 치룰 때 죽은 자들이 식구가 없으면 돈을 주고 전문 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들이 우는 소리가 이 엄마의 울음과 같겠습니까? 주님은 이 과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 곁에 가셔서 "울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주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말을 책임지는 분이십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을 빼앗겨서 우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왜 우느냐 하시면서 주님은 그 눈물을 닦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현장예배와 교회의 사역을 상실한 아픔에 대하여 정말 애통하는 눈물을 주님께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 것을 깊이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찾느냐?" 고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늘 곁에 계심을 성찰하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울면서 찾고 있는 것을 다 찾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인간의 삶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찾고 있는 예배를 다시 온전히 다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서 계십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적인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사역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그냥 이정도로 만족하면서 습관에 젖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걱정이 됩니다. 습관에 젖어서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의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또한 예배의 상실로 오는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닫혀서 진리를 못 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현장에 오셔서 아픔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가 찾고 있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찾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계속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모든 사역의 회복을 위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밑받침이 된 애통의 눈물을 보이시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만이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다 살아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깊이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울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분명히 말하십니다. "00야!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찾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